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2019년 4분기 뉴스레터

01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19년 4분기 외식산업경기지수 65.68로 마무리

2019년 4분기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지난 3분기 결과(66.01) 대비 0.33p 하락한 65.68로 2019년을 마무리 하였음. 2019년의 외식산업경기지수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65점 중반대에서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보합기준점(100.0)과 비교해 한참 낮은 지수를 볼 때 2019년도 외식업체의 경영인들에게는 어려웠던 한해였을 것이라 사료됨.

2020년 1분기 외식산업의 경기를 전망하는 미래경기전망지수는 71.86으로 현재경기지수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임. 다만 평소 미래경기전망지수가 현재 지수 대비 +5p내외의 높았던 것을 감안할 때에 2020년에는 외식산업의 경기 회복이 다소 긍정적으로 예상됨.

* 미래전망지수(2020년 1분기)는 보통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로 인해 현재경기지수보다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02 주요 업종별 외식산업경기지수

한식음식점업 경기지수 점진적 회복세

한식음식점업의 경기지수는 2019년 1분기 64.31에서 2분기 63.66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3분기 64.63으로 회복하였고 4분기에는 65.58로 점진적 회복세를 보임



보합세의 증식음식점업 경기지수 하락

3분기 연속 보합세를 보이던 증식음식점업의 경기지수는 4분기 65.08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회복세 보여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의 경기지수는 지난분기 대비 1.44p 상승하였으며, 이는 2019년 가장 높은 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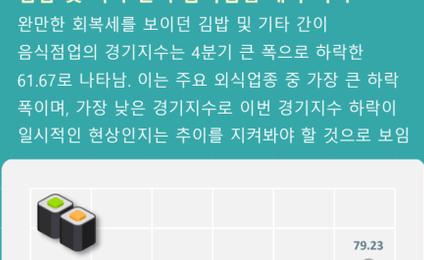
치킨전문점 경기지수 보합세

치킨전문점의 2019년 4분기 경기지수는 63.92로 나타남. 2018년 4분기 57.55의 최악의 경기지수를 보였던 치킨전문점은 2019년 1분기부터는 60점대 초 중반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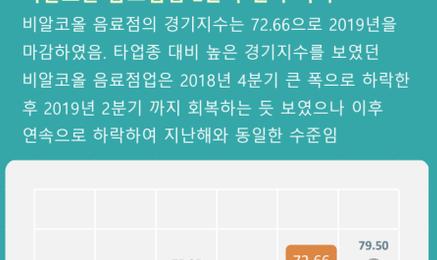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대폭 하락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의 경기지수는 4분기 큰 폭으로 하락한 61.67로 나타남. 이는 주요 외식업종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며, 가장 낮은 경기지수로 이번 경기지수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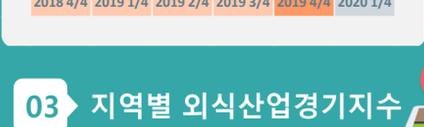
비알코올 음료점업 2분기 연속 하락

비알코올 음료점의 경기지수는 72.66으로 2019년을 마감하였음. 타업종 대비 높은 경기지수를 보였던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2018년 4분기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19년 2분기 까지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연속으로 하락하여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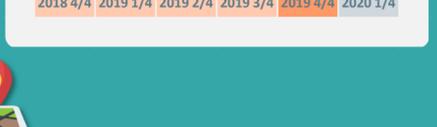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대폭 하락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의 경기지수는 4분기 큰 폭으로 하락한 61.67로 나타남. 이는 주요 외식업종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며, 가장 낮은 경기지수로 이번 경기지수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비알코올 음료점업 2분기 연속 하락

비알코올 음료점의 경기지수는 72.66으로 2019년을 마감하였음. 타업종 대비 높은 경기지수를 보였던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2018년 4분기 큰 폭으로 하락한 후 2019년 2분기 까지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이후 연속으로 하락하여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임



03 지역별 외식산업경기지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2019년 4분기 경기지수가 74.8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원도' 순으로 나타남.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은 지난 3분기 대비 경기지수가 상대적으로 향상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경기지수 향상폭이 8.57p로 높았음

외식산업경기지수 상위 지역(상위 3개)



외식산업경기지수 향상 지역(상위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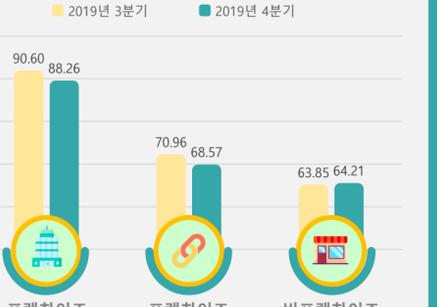


04 운영형태별 외식산업경기지수

업체의 운영형태에 따라 비프랜차이즈 업체의 경기지수만 지난분기 대비 0.35p 상승한 64.21로 나타났으며, 프랜차이즈(직영)과 프랜차이즈(가맹점) 업체의 경기지수는 하락하였음

다만 외식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프랜차이즈(단독)업체의 경기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은점이 외식산업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외식업체의 비프랜차이즈 비율은 약 7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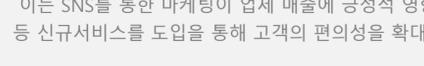


05 사업주 연령 및 신규서비스별 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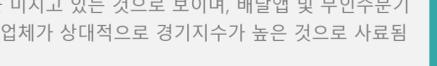
사업주의 연령대별 4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20대 78.22, 30대 71.61, 40대 68.61, 50대 63.43, 60대 60.91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기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배달앱과 무인주문기를 도입한 업체의 경기지수는 74.13과 81.50으로 도입하지 않은 업체 대비 약 10~18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SNS를 통한 마케팅이 업체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배달앱 및 무인주문기 등 신규서비스를 도입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확대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경기지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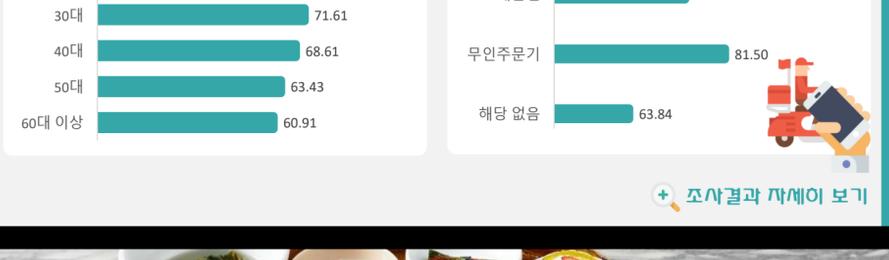
사업주 연령대별 경기지수(4분기)



신규서비스별 경기지수(4분기)



🔍 조사결과 자세히 보기



2019년 4분기 외식업계 동향과 향후 전망

2019년 4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65.68로 3분기 대비 0.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중에 연말 경기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으면서 외식업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 음식점업과 출장 음식 서비스업, 주점업에서는 3분기 대비 경기지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음식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 지난분기 대비 경기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은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으로 4.5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 수요의 변화가 해산물 요리 음식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또한 웰빙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의 발달도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경기지수 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크게 상승한 업종은 출장 음식 서비스업으로, 전분기 대비 2.9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음식 서비스업은 파티, 오찬, 연회 등의 행사 시에 고객이 지정된 장소에 출장하여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4분기에 상승했다는 것은 연말 모임이 호텔이나 식당에서 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출장 서비스를 통한 행사 개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경기침체에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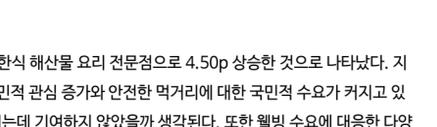
반면, 경기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업종으로는 생맥주 전문점(4.92p 하락),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4.81p 하락), 기관구내식당업(4.63p 하락), 일식 음식점업(3.67p 하락), 한식 면 요리 전문점(3.51p 하락)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맥주 전문점은 아무래도 여름에 비해 가을, 겨울철에 그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이 하락한 것은 편의점을 포함한 소매점에서 김밥을 포함한 간편 음식을 많이 취급하면서 경쟁이 커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그 경쟁 상황에 따른 변화를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구내식당업은 앞으로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그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기전망은 크게 밝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일식 음식점업은 지난해에 한일 무역 갈등에 따른 피해를 가장 크게 본 음식점업에 경기전망지수 하락은 예상된 결과라 하겠다.

2019년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외에도 외식산업에 미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일부 음식점종들이 크게 영향을 받은 해라고 하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위축, 한일 무역 갈등에 따른 일본 음식점업 고객 감소 및 일본인 관광객 수 감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외식 소비행태의 변화, 배달 서비스업 확산 등으로 외식산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반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외식산업에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겠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750만명으로 역대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도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내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식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국내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하여 내수경기를 살리는데 정부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식산업경기지수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2019년 4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65.68로 지난 3분기 대비 0.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1분기 65.97로 시작해 2분기 65.08, 3분기 66.01, 4분기 65.68로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그림 1)과 같이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의 연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등락폭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점진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매년 외식업체의 경기는 점차 어려워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2016~2019년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전반적인 외식업 경기하락 현상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업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 2019년 4분기 경기지수를 기준으로 경기지수가 낮은 업종과 높은 업종을 구분해 보면 (표 1)과 같다. 외식산업경기지수가 낮은 업종과 높은 업종을 구분하여 공통점을 찾아보면 몇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경기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을 살펴보면 창업 진입 장벽이 낮고, 주식(主株) 개념이고 제품 중심적이며, 주류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창업 진입장벽이 높고, 간식(間食) 개념이며, 공간중심의 디저트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그 차이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반적인 외식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업종 간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사실을 통해 향후 외식사업자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 사업자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가능한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차별화 요소를 개발하여 창업해야 한다.

둘째, 일상화된 주식 개념의 사업보다는 특화된 간식 개념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업종의 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음식과 같은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보다는 분위기와 공간,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의 성장이 예상되므로 체험을 가미한 업체 개발 능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도수가 높은 주류보다는 가볍게 즐기는 주류와 특화된 음료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자기만의 특화된 음료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연구해야 한다.

🔍 조사결과 자세히 보기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경희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외식프랜차이즈MBA 김영엽 교수